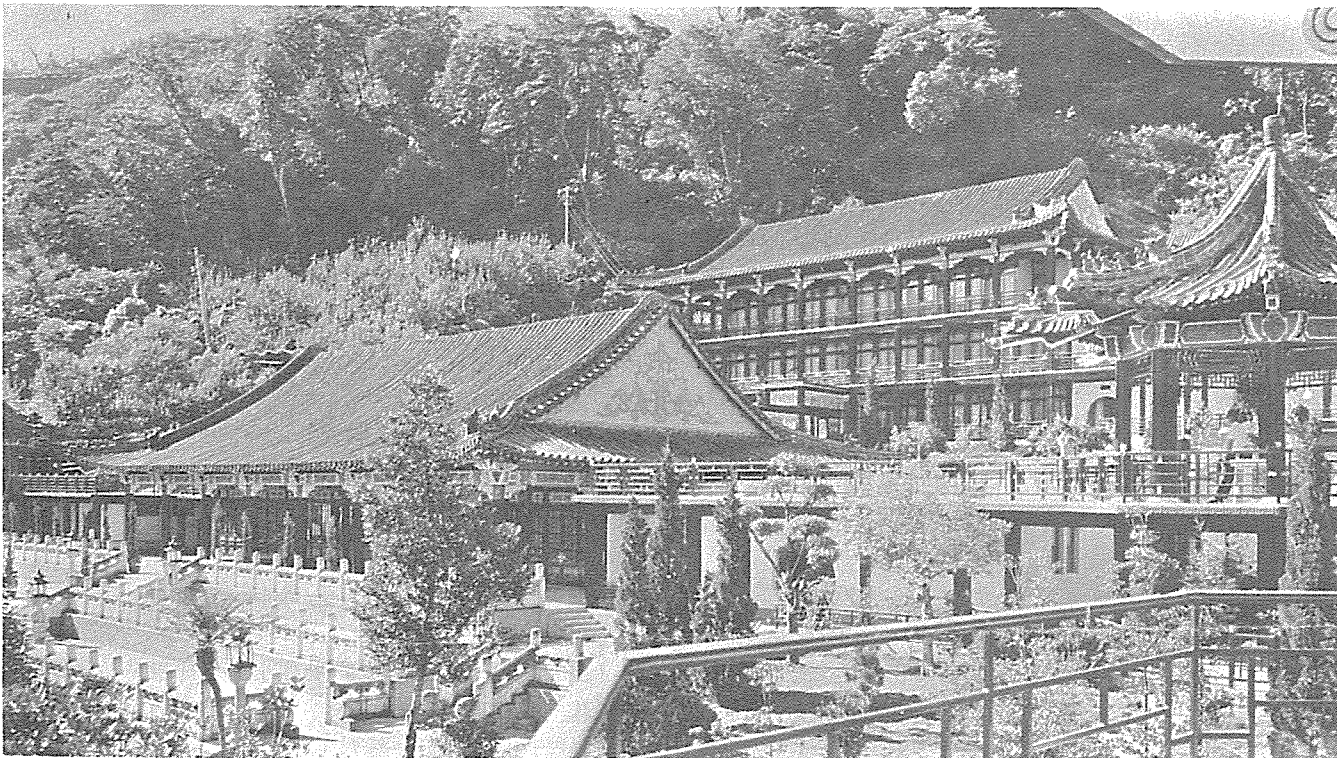


내가 본 中國建築

(台灣을 둘러보고)

詩人・檀國大, 文理大學長
金 容 浩



리산에 있는 궁전 같은 화려한 호텔인 리산 하우스

(1) 서울의 中央—明洞에 자리잡고 있는 中國大使館을 보면 곧 中國風의 建築樣式을 採択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옛 것을 옛 것으로 固定

시킨 게 아니라 現代의 感覺과 잘 調和시키고 있는 것도 쉽사리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建築樣式에 있어서 中國의 個性을 갖인 建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 現在 建築되고 있는 대개의 建物들은 어떠한가.

偏見인지는 몰라도 이른바 現代建築에 있어 韓國의 個性을 찾아 볼 수 있는 建物은 거의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建物들이 歐美의 建築樣式을 따르고 있느냐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함에 問題點이 있는 것이 아닐까.

高層을 자랑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대개가 얼치기 建築임을 露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現代의인 感覺을 풍기면서도 그 나라의 個性의인 建築樣式이어야 한다는 것을 前提해 놓고 中國의 建築을 우선 一瞥해 보기로 하자.

(2)

中國 上古의 遺跡는 거의 그 所在을 알 수 없고 간신히 石碑等으로 옛날의 工藝技術이 어떠한가를 想像할 수 밖에 없고 六朝에 와서 雲岡의 石佛寺에 依하여 當代에 形式을 推知할 수 있는 實例가 있지마는 隋·唐·宋 時代의 것으로는 겨우 塔姿의 數基가 있을 뿐이다. 遼金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그 形式을 傳하는 寺院이 保存되고 있지만 元朝에 있어서는 居廟窟을 唯一의 遺例라고 볼 수 있으며 明清에서 처음으로 많은 木造建築의 遺蹟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明清의 手法은 唐樣의 遺風을 調色하여 拙劣을 더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中國建築에 있어서의 一般의 特色의 두 세가지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지붕 — 中國太古의 幼稚한 建築法은 天幕이 進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쪽에 下降한 것과 反對로 치올라간 것 두가지가 代表的인 形式인 것이다.

塔 — 佛敎의 傳來와 더불어 塔은 各地에 建設되었는데 中國建築에 있어서 溫古의 좋은 記念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層數는 三重부터 十三重에 이르고 三, 五, 七, 九의 奇數를 使用한 것이 常例이다.

牌樓 — 이것은 印度 토오란(Toran), 혹은 日本의 도리이(鳥居)와 흡사한 것으로 頌德標로서 寺院의 墳內, 또는 市街等에 建設되었는데 대개는

石造인데 木造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기둥 — 伽藍의 大柱는 數個의 木材를 合하여 鐵輪으로 감고 그 위에 綿布를 입혀 一種의 泥炭塗料를 三度塗로 하고 다시 그 위에 朱塗를 한 것이 上等인 것이다.

家屋內部 — 格天井이 많고, 平壇, 혹은 折上으로 하여 化粧梁의 위, 또는 아래에 두고 梁은 單梁, 또는 二重梁으로 하고 그 사이에 斗組, 혹은 蟻股를 꿸고 혹은 羽目張으로 하였다.

門扉 — 門扉는 唐戶로서 아래의 軸은 唐戶敷居에 끌이고 위의 軸은 이른바 아랫구멍이 있는 곳에 넣어서 通常 四本の 막개를 貫通하여 楔留한 것이다.

彫刻 — 彫刻에는 대개 色彩모양을 應用한 것이 많고 石欄器具 따위에는 꽤 많이 彫刻을 使用하고 住宅의 建具類에도 이것을 濫用했다고 볼 수 있다.

彫刻의 種類를 北京의 紫金城을 例로 하여 列舉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 ① A. 動物(龍, 鳳凰, 獅子, 麒麟, 饕餮馬, 鶴, 龜, 虎, 羊, 象, 蝙蝠, 燕, 金魚等)
- B. 植物(牡丹, 蓮, 菊, 梅, 其他 各種의 唐草)
- C. 天體 및 自然의 現象(雲, 水, 山, 岩等)
- ② 幾何學的의 模樣(直線形과 曲線形)
- ③ 人工의 模樣(寶物, 끈을 꿸처럼 結付시킨 것 등) 위에서 우리들은 極히 簡略하게 中國建築의 總括的 形式을 알 수 있다.

(3)

이것을 다시 年代에 依하여 中國建築을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秦時代 — 周末, 即 戰國의 때부터 秦나라가 滅亡한 때를 包含하는 것인데, 萬里長城의 遺蹟은 그 代表的인 것이지만 簡素함이 그 特色이다.
- ② 漢魏時代 — 이때에 있어서 비로소 外國의 文化를 輸入한 것에 이 時代의 意義를 發見할 수 있다
- ③ 六朝時代 — 이른바 西晉, 東晉, 南北朝의 時代로서 工藝美術은 外國의 影響을 받게되어 크게 發達한 時代이다.
- ④ 隋唐時代 — 中國의 美術은 이 時代에 있어서 空前絶後의 發達을 하게 되었고 建築의 裝飾模樣은 一定한 樣式을 갖게 되었다.
- ⑤ 宋時代 — 唐의 意匠을 응용하고 建築의 內部에 多少 創意를 發見할 수 있는 時代다.

⑥遼金時代—唐宋의 模造時代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独立的인 流派를 形成하지 못한 時代이다.

⑦元時代—이 時代에는 美術의 嗜好가 穢이나 低下하고 唐宋의 手法를 改竄하여 드디어 그 精神을 喪失하고 말았다.

⑧明清時代—裝飾, 模樣等에 濃厚한 色彩를 使用하고 彫刻에 있어서는 복잡한 畵畵을 낳게된 것이 時代의 特色이다.

이러한 時代를 背景으로 하여 中國의 建築의 實例를 들어 본다면 꽤 흥미로운 점이 많으나 너무나 복잡함으로 省略할 수 밖에 없다.

(4)

建築이란 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時代의 嗜好, 氣候風土等에 相当히 많이 左右되고 影響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다른 한편 創意性을 發揮한 時代, 模放의 時代, 停滯의 時代가 있음은 위에서 우리들은 넉넉히 推測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自由中國의 台灣에 가서 옮겨니 하고 感嘆한게 하나 있다.

台灣은 亞熱帶(南部는 熱帶)로서 몹시 더운 곳이다. 그러나 이런 風土에 自然히 建築에 있어서 若干 달라질 수 밖에 없다.

經濟的인 餘裕도 加算하여야 되겠거니와 台灣의 住宅은 거의가 벽돌벽이었다. 게다가 벽이 꽤 두텁다. 그리고 勿論 우리나라 처럼 溫突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거개가 板子 마루 바닥이었다. 하기가 貧富의 差에 따라 内部構造가 다르긴 하였지만, 基本的인 이런 것이었다. 벽들의 벽이 두텁다는건 더위를 막아 내자는 自然스런 要求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가 옮겨니 하고 感嘆한건 이런건 아니다. 추위를 막아내는 대도 亦是 벽은 두터워야 하겠기에 말이다.

市街(특히 台北)를 걷고 있노라면 人道임에도 不拘하고 나는 남의 지붕 아래를 걷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같으면 人道의 몇 메타 距離밖에 建物이 서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台北은 그렇지 않다. 남의 집 아래를,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人道 위는 남의 집 二層이요, 그 아래를 걷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人道에 該當되는 空間에는 一定한 距離에 기둥만 서 있을 뿐, 그게 바로 人道요, 또한

一定한 높이에는 모두 二層이 있는 것이다.

市街의 이런 建築構造는 어떤 利得이 있는가. 첫째 空間을 最大한 利用하는 것과 둘째는 더위(太陽의 幅射熱)나, 비를 막는 우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台灣의 繁華街를 걷고 있노라면 비가 온다고 하여 당황할 필요도 없거니와 약썩빠른 지우산을 들고 쫓아오는 少年도 없었

옮겨니 하고 感嘆한게 바로 이 점이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다. 가령 우리 서울의 人道의 空間을 二層부터 建築한다고 하자, 모르긴 하되 상상할 수 없을만치 많은 坪數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台北처럼 비닐 雨傘 장수는 廢業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름이면 오죽 시원하겠는가. 땀을 뺀고 땀을 뺀뺀 흘리며 지나가는 사람도 비교적 적을 것이며 거지장스런 파라솔의 競艶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조그만 아이디어가 큰 利得을 가져온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면서 옮겨니, 옮겨니 하고 나는 몇 번이나 옮겨니를 連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建築樣式도 대수로운 건 아니지만 台灣의 個性있는 建築樣式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固定觀念에 사로잡혀 있는 限 進歩는 없다는 것을 나는 敎訓삼지 않을 수 없었다.

(5)

애기가 되돌아 가지만 위의 몇 가지의 建築樣式의 原理를 생각한다면 지금 서울에 雨後竹筍처럼 솟아오르는 建築은 한 번 自省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첫째, 韓國의 特性이 있는 建築인가.

둘째, 첫째에 다시 個性의 建築인가.

셋째, 곧 여기가 Korea 서울이라고 印象지을 수 있는 創意性 있는 建築인가.

그리고 이 時代에 있어 韓國의 建築界는 創意의 時代인가, 모방의 시대인가, 정체의 시대인가를 또한 自省해야 할 것이다.

建築美術이라고 한다. 建築은 있지만 美術은 없다면 그것은 절름발이다.

하기가 經濟的 理由도 있겠지만 經濟的 餘裕가 있는 사람은 藝術을 理解 못하는 곳에 建築을 理解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註·(2)(3)은 大態喜邦著의 世界古代建築美術史를 參照하였음)